

‘학생부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지상법의

임시 토크

전국의 고등학교 교실은 지금 ‘기록’이라는 거대한 신기루를 쓰고 있다. 수행평가 철이 되면 학생들은 밤을 새워 탐구 보고서를 급조하고, 교사들은 학생의 개성을 500자라는 제한된 틀에 우겨 넣기 위해 작문 전쟁을 벌인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내신의 불리함을 단숨에 뒤집을 마법의 열쇠라는 믿음, 이른바 ‘생기부 만능론’이 공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기록이 과연 대학 문턱을 넘게 해줄 실질적인 무기일까. 입시 데이터와 대학의 평가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결론은 자명하다. 기록은 ‘숫자’라는 보증수표가 있을 때만 가치를 지닌다.

대학 평가 프로세스는 수험생의 기대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효율적이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한 명이 검토해야 할 서류는 연간 수천 건에 달한다. 고려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서류 평가 기간 중 사정관 1인이 학생 1명의 생기부를 검토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

은 고작 10분 내외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사정관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정독 하며 숨겨진 진주를 찾지 않는다. 필자가 분석한 학생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대학은 우선 ‘학업 성취도’라는 정량적 지표로 평가 대상을 1차 선별한다. 즉, 성적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학생의 화려한 기록은 사정관의 눈에 닿기도 전에 이미 평가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 도 대입 개편안에 따른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되며 1등급이 10%까지 확대되자, 등급 변별력이 약해져 생기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생리를 간과한 해석이다. 1등급이 흔해질 수록 대학은 역설적으로 그 숫자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원점수와 등수가 전교 최상위권인 학생의 세특은 ‘탁월한 탐구력’으로 읽히지만, 등수가 밀린 학생의 화려한 세특은 ‘화려한 포장지’ 혹은 ‘신뢰할 수 없는 과장’으로 치부된다. 즉, 5등급제 체제에서 생기부는 낮은 성적을 가려주는 가면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증명하는 검증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신 1~2등급대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생기부는 동점자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한 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부족한 점수를 메우기 위해 기록 관리에 몰두하는 것은 전략적 패착이다. 교육 당국의 통계는 낮은 성적을 기록으로 뒤집는 역전극이 극히 이례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작성된 고난도 탐구 보고서는 입학사정관에게 학생의 역량이 아닌 ‘교사의 미사여구’ 혹은 ‘대필’로 비칠 뿐이다.

결국 대입의 본질은 ‘학업 역량’으로 수렴된다. 생기부는 그 역량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이지, 실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면이 아니다.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입시의 주객을 혼동하지 말라는 뼈아픈 충고다.

대학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 성적이 곧 생기부의 ‘독자’를 결정한다는 냉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록을 위한 작문 기술이 아니라, 교과서의 원리를 파고드는 치열한 공부다. 기초가 부실한 기록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숫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역량은 결코 대학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JBS진로전학연구소장

오늘의 운세 2월 5일 (음 12월 1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지강을 위해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60년생**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72년생** 작은 양보가 나중에 큰 보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84년생**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집니다.

49년생 지출보다는 수입이 앞서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오랜 고민거리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73년생** 직장에서의 성과가 윗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85년생** 금전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50년생 무리한 외출은 체력을 떨어뜨리니 집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62년생** 동업자의 의견 조율에 신경 써야 합니다. **74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86년생**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실리를 쟁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1년생 문서상 이득이 있거나 좋은 계약 소식이 들립니다. **63년생**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75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87년생**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중하세요. **64년생** 투자는 미루고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데 주력하세요. **76년생**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우선 순위를 정해 움직이세요. **88년생** 비밀이 탄로 날 수 있으니 정직하게 대처하세요.

53년생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명상이나 종교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65년생**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의외의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77년생** 서류 정리를 꼼꼼히 하세요. 실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54년생 주변의 칭송을 듣고 명예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66년생** 막혔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며 여유가 생깁니다. **78년생** 기발한 아이디어로 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90년생** 고백을 계획 중이라면 오늘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55년생 소화기 계통 건강에 유의하고 과식은 피하세요. **67년생**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으나 금방 풀립니다. **79년생**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 **91년생** 윗사람과의 마찰이 예상되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56년생 자녀의 일로 신경 쓸 일이 생기나 원만히 해결됩니다. **68년생** 새로운 일을 벌이보다는 미루리에 집중하세요. **80년생** 대인관계에서 유연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고집을 꺾으세요. **92년생**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배우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69년생** 돈보다는 사람을 얻는 데 집중하면 큰 복이 됩니다. **81년생** 지출이 늘어나는 날이니 가계부를 꼼꼼히 살피세요. **9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도록 실망하지 마세요. 곧 기회가 옵니다.

58년생 오랜 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힐링을 암습니다. **70년생**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82년생**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가정에 화목이 깃듭니다. **94년생** 솔직한 태도가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게 해줍니다.

59년생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1년생**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날입니다. **83년생** 승진이나 포상 등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기회가 생깁니다. **9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운이 따릅니다.

결정이 없으면 실행도 없다… KAI 7개월 공백



기자 수첩

유혜온
(산업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실행의 시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 양산이 본격 궤도에 올랐고, LAH·수리온 인도 일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실행을 총괄할 사장 자리는 7개월 이상 비어 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인선 지연 그 자체보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리스크가 회사 안에 쌓이는 것이다. 노조가 조기 선임을 요구하며 피켓을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임금·복지보다 ‘결정권자 부재’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분위기다.

KAI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는 오너

십 부재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주인 없는 회사 구조 속에서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생긴 후폭풍이 누적됐다는 얘기다. 한 번의 칼질로 정리될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 사장 인선이 더뎌진 배경을 놓고 도 해석이 분분하다. 유력 후보가 부상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인선 자체보다 결정 구조의 불확실성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 인사 흐름과 방산업계 인선이 맞물려 움직이는 관행 속에서 결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여기엔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재정 조정 이슈도 겹쳤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 1조 6000억원 수준의 개발비 분담과 완제기 48대 도입을 전제로 공동개발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고 기술이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감액에 따른 재정 구조 조정은 정부 간 협의와 정부-KAI 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국면에서 사장직 공석이 장기화된 조직 구조가 안정적인 실행 체계로 비치느냐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KAI 민영화 가능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돌지만, 시기와 방식이 정해진 로드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검토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KAI는 이미 ‘결정의 시간’에 들어섰다. 더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커질 뿐이다.

/dhaledhale@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희망의 복덕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소원을 품는다.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이다. 새해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희망을 품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가짐이니. 命學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매년 매달 매일 쉬지 않고 변화하며 새로운 순환 속에서 새로운 복덕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시련을 계속해서 겪어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주 팔자와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운은 영원히 어떤 하나의 상태로만 머물지 않는다. 혹독한 추위가 끝나면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할 때일수록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움튼다. 운명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지니고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운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불안과 걱정보다 희망 가득한 마음을 품으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丙火와 午火의 기운이 강한 丙午년은 폭발적인 열정과 거침 없이 뻗어나가는 비약적인 성장을 암시한다. 끈기 있게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기운이 작용한다. 팔자학은 개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면 개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새해에 世運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새해 운세의 흐름과 개운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해인지, 관계를 다듬어야 할 시기인지 내다보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자신의 운명으로 만들 수 있다. 희망을 품는다는 건 좋은 운세의 흐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宫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7 4			5 3		
	5			1			4	
								8

Sudoku 365

컬로우형스도쿠

컬러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민지도의 웹드메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7 9 3 6 7 9 3 6 7

1 4 8 4 8 1 5 3 2

6 3 1 5 9 6 8 5 4

7 9 4 5 2 1 9 3 7

1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1

5 4 3 2 1 6 5 4 3

6 5 4 3 2 1 7 8 9

7 6 5 4 3 2 1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운 휘 종

발 행·편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인 쇄 인
증정일보(주)
윤 휘 종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